



광남일보



aT-전남도농기원, 여름배추 시범재배 협약
기후변화 대응...재배지 다각화 협업

7



해남 자원순환복합센터, 탄소중립 거점 도약
재활용품 교환·공유물품 대여 등 한곳에

8



고흥, 적극행정 성과 '역대 최고'
정부합동평가 1위·공약이행 SA 등급

9



시페머스 고예림 "팀 우승 목표로 달릴 것"
12시즌 간 활약한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12

조간 제7847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음력 4월 25일)

재생에너지 메카 전남, 해상풍력 '선도'

전남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구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남도가 3.2GW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들 공식화한 데 이어, 민간기업 SK이노베이션 E&S도 신안 해역에서 대규모 풍력단지 상업화에 나서면서 해상풍력 발전의 본격화를 알리고 있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E&S가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해역에 조성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그동안의 시험운전을 마치고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영에 들어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신안군 연안에서 약 9km 떨어진 수심 10~20m 해역에 건설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로, 민간이 주도한 해상풍력 사업 중 단일 단지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총 96MW 규모의 풍력발전기 10기가 설치되며, 연간 3억107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약 9만 가구의 1년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1단지가 들어선 자은도는 연평균 풍속이 초속 7~8m에 달하고 수심이 얕아 고정식 해상풍력에 최적화된 입지로 평가받는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오는 2035년까지 총 8.2GW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상업운영 개시는 그 첫 단추로, 향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전남은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최적으로 잇따라 평가받은 바 있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해상에 설치된 전남해상풍력 1단지 전경.

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E&S

연간 약 9만가구 사용 전력 생산...24만t 온실가스 감축 기대

다. 실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기후에너지 공약을 통해 전남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큰 그림을 공개하면서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메카라는 점을 재확인시켜 줬다.

해상풍력을 포함해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공약을 제시했던 '햇빛·바람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전남은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최적으로 잇따라 평가받은 바 있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광고했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민자 20조원이 투입돼 전체 10개 단지 3.2GW 규모로 조성된다. 설비 용량 기준 원전 3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남도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발전 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을 포함하는 전력계통

협의체를 구성해 송·변전설비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연간 2450억원을 확보할 수 있어 주민 이익 공유와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시장 확대와 함께 연관 산업 생태계도 만들어 나간다. 지역 공급망 우대 방안을 통해 하부구조물, 타워, 케이블 등 해상풍력 연관 기업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강진·영암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선정

타운하우스 공급 등 주거단지 조성...인구유입·정착 지원

강진군과 영암군이 지역 특성을 살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7개 관계부처와 협업을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강진군과 영암군 등 전국 10곳 자치단체

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국토부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까지 8개 부처가 협업하는 사업이다.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 인구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고자 주거·생활 인프라·생활 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2023년 처음 도입됐다.

강진군은 2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옛 성화대 캠퍼스 부지 2만1620㎡에 공동주택 60호 및 타운하우스 1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해 청년취창업 지원지역 소상공인 성장 지원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사업비 184억원을 투입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2만7267㎡ 부지에 단독형 타운하우스 44호를 공급하고,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해 청년 맞춤형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조성에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6·3 대선 "투표를 높여라"

이색 캠페인·유세전 '눈길'

응원단 자전거로 민심 탐방
경청노트에 주민 의견 담아

동네방네 현장응원단 가동
단체장들도 적극행정 동참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정치권의 투표를 견인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유세전이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3·4·5·6·15면
특히 더불어민주당 광주선거대책위는 역대 최고의 투표·득표율 90% 달성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총동원하면서 지역 정치에서는 '선거운동=극한직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21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선대위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출정식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역 득표율 목표를 '90% 이상'으로 설정했다. 투표율 목표도 지난 20대 대선보다 5%p 높은 85%로 제시했다.

광주선대위는 투표율 90% 이상 달성을 위해 대규모 유세 대신 골목골목 찾아가는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유세와 투표 독려를 위한 지역별 캠페인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먼저 민주당 북구갑 지역위원회(정준호 의원)는 이번 대선의 핵심 기조인 '통합·경청·현장'을 실천하기 위한 '민심 탐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지방의원과 핵심 당원을 대상으로 '경청 노트' 취지와 실

천 방법을 공유하고, 북구지역 전역을 누비며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집하는 '경청 노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정 의원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화한 '골목형 리스너 프로젝트'로, 다양한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당면 과제를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또 지방의원들은 시간대별로 선거운동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배포된 '경청노트'에 주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메모해 선대위에 제출하고 있다.

광신구를 지역위원회(민형배 의원)도 특별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이 주도하고 당원이 함께 만드는 '내만세(내가 만드는 선거) 위원회'의 자전거 유세와 생활밀착형 캠페인이다.

민형배 상임선대위원장과 내만세위원장 소속 시민유세단, 동네방네 현장응원단 등은 자전거를 타고 광산지역 첨단 등 동네 골목골목을 돌며 시민과 소통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이제 선거는 보여주는 시대를 넘어, 함께 만드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은 위대한 광주시민이 직접 만든 선거로, '이기는 것'에 머물지 않고, '압도적 승리'로 내란 세력의 퇴장을 시민 손으로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외에서도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

참여로 지키는 소중한 권리

선거일 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오후 8시

사전투표 5월 29일(목)~30일(금)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정책 공약 확인
policy.nec.go.kr

후보자 토론 다시보기
debates.go.kr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